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산악연대 2009 동문들이 아홉
희에서 줄다리기 시합 중이다》



미주 동창회와 관악세대 변모를 모색

동창회보 web site 운영 IT위원회 구성

제12대 회장단에서 역점사업으로 모색하고 있는 관악세대를 위한 미주동창회 프로젝트(동창회보 8월호 제22호)를 발표한 후 관악세대에서는 선후배 세대들의 가고 역할을 자임하고 고교로 푸르는 전배년들의 노력에 바짝승리드나고 하며 이를 계기로 서울대 의원을 넘어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12대 회장단의 제안에 공감하며 소장, 도장 할 것 없이 한 대 아울러 활동하는 그런 관악세대 분위기와 이코노믹라이프가 주목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LA 같은 지역에서 관악연대를 베이스트로 동창회에 건

의하게 참여하다 보면 몇 가지 특장을 발견하게 되는게 이런 당면한 점을 해결하는 것도 미주 동창회와 관악세대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문제를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배들의 선배 세대와 관악세대 개념이 있는 관악 캠퍼스 세대의 화합적인 결합은 쉽지 않습니다.
- 선배들의 총동창회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동창회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 관악세대들은 단과대별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 관악세대들은 페이퍼 동창회 보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 아크로폴리스 타임즈는 4년마다의 가자만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 단과대 웹사이트, 남가주 동창회 웹사이트,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등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으며,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콘텐츠가 없고 행사 알릴 위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 아크로폴리스 동창회 상하구조는 아니지만 '글로벌 서울대'의 온라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온라인

The Korea Society와 Partnership

인적교류 · Joint Program 통해 창의적 사업

미주 동창회(SNUAA-USA)가 The Korea Society(TKS)와 Partnership 관계를 맺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인적교류·Joint Program 등을 협의하면서 창의적인 사업들을 함께 떠나기로 합의했다.

오인환(포리대 63) 미주 동창회장은 "최근 TKS Chairman, Amb. Thomas Hubbard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본인들은 물론 TKS President Amb. Minton과 W. Norper 등 모두가 열정을 표시하며 이같은 협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가을 프로그램에도 보내겠다"고 밝혔다.

234호 2013년 10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ay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0083 Fax: 703-462-0083

e-mail: snuausa2@gmail.com

The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인 신문이기에 동창회 웹사이트를 빌드도 운영하는 것도 아크로폴리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며 관련팀(아크로폴리스 동창회)을 만들어도 된다

제12대 회장단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고 있을 때다 보니 동창회보 발행, Website 운영, IT 위원회를 연계하기 위하여 차기 회장 선출(가정대 77) 동문들이 IT 위원장으로 위촉된다고 공시하는 IT 위원회를 만들어 Online 시대로 가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일임했습니다.

동시에 관악세대 담당 부장에게 인성(사하 81, LA) 동문을 임명하여 자·미주동창회 관악세대 동문들과 취재 유대와 Acropolis Website를 활성화 하고 미주지역으로 교류를 정례화 해 세대교체와 Online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회장단에서는 이러한 관악담당 부장에게 위임한 3건의 지면을 담당하고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물론 여하불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회원 관련담당 부장, 선재국 IT 위원장, 오인환 회장>

〈지역 동창회 탐방〉
Heartland동창회 14편

〈한글날 기념〉우리
한국어의 기원... 7 편

My Journey to
America 〈이후관〉 23편

를 기록했다.

QS 세계대학 평가는 영국으로 발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매년 <세계평판과 졸업생 평판도> <연구영향도(교수 1인당 논문발행인수)> <교수대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 등을 종합하고 합산한 순위를 정하고 있다.

QS 세계대학 평가는 지난 2004년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의 평가는 전 세계 3위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에서는 전 세계 대학 692294명,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 27만 786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0년간 한국 대학의 글로벌 위상은 계속 상승해 2007년 세계 20위에는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두 대학이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영국 QS 세계대학 평가

모교 세계 35위로 역대 최고순위

모교 서울대학교가 세계대학평가에서 35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순위다.

모교는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Qucarelli Symonds)에서 실시한 '2013 세계대학평가'에서 35위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모교는 지난 2004년 118위를 시작으로 201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순위가 올랐다. 2010년에는 전년대 비해 3계단 떨어진 5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 해 기록(37위)보다 2계단 상승, 또 다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해의 학제와 인지도에 알 수 있

는 '학제 평판' 항목에서는 32위를 기록했으며 기업대상 설문조사인 '졸업생 평판도'에서 46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24위)·홍콩대(26위)·도쿄대(32위)·홍콩과학기술대(34위)에 이어 모교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전체 1위는 미국 테사주세공대(MIT)가 차지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뒤를 이었다. 4-6위인 UC, 임페리얼, 옥스포드 역시 영국의 대학이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다음으로 KAIST가 60위에 올랐고 포항공대 107위, 연세대 114위, 고려대 145위, 성균관대가 162위

QS 세계대학 평가 순위		
2013	2012	대학명
1	1	MIT
2	3	Harvard
3	2	케임브리지
4	4	UCL**
5	6	임페리얼
6	5	옥스포드
7	15	스탠퍼드
8	7	에일
9	8	시카고대
10	10	Caltech
10	9	프린스턴
35	37	서울대
60	63	KAIST
107	97	POSTECH

***LQ Univ. College London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미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와 관악후원회비가 원동력입니다. 매년 10명 중 3명(30%) 정도가 동창회비를 내주시고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절실해 요구되는 때입니다.

회비를 보내주실 곳은 주소 1952 Galloway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 (703) 462-0083 e-mail: snuausa2@gmail.com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446



안호영(외교학과 76) 주미대사 뉴욕에서 '벤플리트상' 수상

성 김 주한 미대사와 공동 수상
안호영 주미대사(외교학과 75-
학번 13년 오른쪽) 성 김 주한
미대사와 함께 2013 벤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대사와 성 김 대사는 지
난 9월 25일 뉴욕 맨해튼 더 플
라자 호텔에서 열린 연례미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양국의 전현직
외교관을 대표로 이치열 벤플리

트 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한
미관계 60년'이라는 주제로 한
미관계를 최 북한 핵문제 등에 관
한 한국 정부 입장과 새로운 방
향을 제시했다.
벤플리트 상은 6.25 한국전쟁에
서 활약했고 미 8군 상관을 지
낸 제임스 벤 플리트 상관을 기
리기 위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제정한 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진
희 상설직 회장, 정경호 현대
차 그룹 회장, 조지 부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수상
한 바 있다.
이날 연례미담엔 외국에서 출생
한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 김영록 전 뉴욕총영사 등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외교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
하는 의미에서 6.25 참전 용사들
이 초청됐고(오른쪽 사진) 뉴욕
맨해튼에서 한인이 특성화 고교
로 잘 알려진 데모크라시 프라
이스쿨의 세스 렌드루 설립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진형 - 이제형 등은 남에 박사

실리콘 밸리에서 벤처 창업 화제

노획한 치료 개발 비이오 벤처
회사와 모바일 컴퍼니 이이오
벤처 개발 벤처 기업 만들어

실리콘 밸리에서 동문 남에가
세로로 청년 기술을 자랑하는 벤
처 기업 창업으로서 동창회에
기다란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이진형(36) 스탠포드
대학 바이오 엔지니어링 교수와
동생 이제형(33) 박사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서

을 과학교과 서울대 전기공학부
를 졸업한 후 스탠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온 다음 자신들의 전공인
전기공학으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누나인 이진형 교수는 지난 2007
년 UCLA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2012년부터 스탠포드 대학으로
직리를 옮겼다.
이에 비해 동생 이제형 박사는
올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과
정을 마치고 곧바로 창업에 뛰
어들었다.

-이진형(오른쪽) 스탠포드 대학
비이오 엔지니어링 교수와 동생
이제형 박사가 벤처 기업 창업에
성공한 뒤 청담계 서로 등을 맞
대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제형 박사는 역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같은 학년 동문
동생 2명과 같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생
리온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스트
라리온'을 공동 창업하고 이 회
사의 최고경영자(CEO) 직을 맡고
있다.

아직 이 세서는 스마트폰 캐
피에 모듈을 붙이면 망글 바뀌는
양자판 1년 안에 소형화하여 이
제형 현재 출시된 경쟁사 제품보
다 가격이 1,000분의 1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관련 업
계에 받고 있다. 해상도도 경쟁
제품보다 4배가 높은 데다 무
엇보다 전력 소비가 적은 게 큰
장점이다.

누나인 이진형 교수는 동생보다
먼저 창업한 케이스다.
뇌 회로연구의 권위자로 평가받
고 있는 이진형 교수는 지난 해
뇌 회로를 구성하는 뉴런들을 분
류하고 자극하여 조절하는 방법
으로 뇌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 'LIVS'를 창
업했다.
이 회사 역시 이미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유치한 상태다.***



손재욱 차기(제13대) 미주동창회장 미주 동창회 사무실 방문 & 부군 경사

오인환 회장과 미주 동창회
합의, 손 차기 회장의 부군 티
모시 하, 백악관 국립 건축국
연구소(NIBRS) 창립 일명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손재욱
(가장대 77) 차기 미주 동창회
장(제13대)이 지난 29일 2951
Virginia의 Viemmo 소세 미주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손 손재욱 차기회장의 부군
티모시 하 CEO는 국립과학
촉진연구소 이사로 임명됐다.

▶손재욱 차기 회장은 손 차기
회장은 이날 오인환(문과대
63) 및 미주 동창회장과 만나
오찬을 같이 하면서 미주 동창
회 전반에 관한 내용을 대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웃
사진)

손 차기 회장은 현재의 필라
델피아 동창회와 주 동창회
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서
도 협의했다.

손 차기 회장은 미주 동창회
를 위해 꼭꼭까지 많은 참고
협조를 해주고 있다.

▶부군 티모시 하-한인 손재
욱 차기 미주 동창회장의 부
군 티모시 하(한국계 하와이-사진)
국립건축과학연구소(NIBRS) 이사
임명안이 지난 9월 11 연방상
임명을 받았다.

오마하 21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한인 동포 하영록 이
사는 지난해 12월 이사로 지명
된 뒤 상하를 거쳐 이치열 상
인공을 받은 것이다.

NIBRS는 연방회의의 인공을 받
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 6명과 전문가 등
총 2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영록 이사는 앞으로 NIBRS
의사로 활동하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세대 건축 기술과 실
용화 건설 정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하게 된다.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1994년
이사로 활동하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세대 건축 기술과 실
용화 건설 정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한미 교육제
년 기념식에서 참석, 1.5세대
국 자세대들에게 코리안어지
언의 공부를 심어주는 keynote
speech를 하기도 했다.***

모교 입학정책 웹진 '아로리' 개설

모교 입학정책은 입학 정책과
대학안내, 전공 안내 등의 정보
를 담은 웹진 '아로리'
(http://smuorori.snu.ac.kr)를
개설했다. 입학정책과 대학
생활, 참여공간으로 구성되며
이 입학정책 코너에서는 자주 묻
는 질문들, 신입생 인터뷰, 면접
및 구직고사, 논문고사 기술제
등 생생한 정보를 일체적으로 제
공하고 있다.

모교는 웹진 '아로리' 개설을
계기로 모교 입학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부모, 고교 교
사 등과 관련한 소통의 창을 마
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교 입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제
고되길 기대하고 있다.***

차 례	
3. 회장단 임원회의 / Web으로의 동창회 / 2014 서울대 인명록 / 13년	나미로 탄생했다(자신) 선택하는 생활상
45. <교소소사서대대 DNG> 프로젝트 / 45. 한국 신속 기금모금 / 다시 입학해도 무리 대학 / 세계 최첨단기술을 집중하는 서울대병원 / 2014 에디터의 북수 학위제 / 철학과 이치열 <33> 박사다 / 6. <국사사/칼럼>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7. <한글날 기념칼럼>한국의 기원 / 단동일 / 여름의 절정에서 / 8. <21강의의 칼럼>김영록의 예매와 최근 치로비 / <동문서/김영록>박사 / Bae / Wook-hyun / Killer / 9. <국사사/칼럼>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 10. <대입의 밤> 대입의 밤 / 11. <대입의 밤> 대입의 밤 / 11-13. 미주 동문 동창
	14. <동창회지> 지역동창회 탐방 / heartland / 15-19. 미주지역 동창회 소식 / 2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4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5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6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7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8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9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0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1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2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3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4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5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6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7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8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19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0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1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2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3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4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5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6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7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8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29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0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1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2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3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4.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5.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6.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7.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8.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49.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50.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51.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52.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53. <관악제>대한민국 상인 / 40년 앞의 전 / 3

건강 의화 칼럼

간염의 예방과 최근 치료법



김부건(의대 52) MD
위양간과 전염의 전문
취임한 DC 통합회 전 회장

간염은 중요한 질환으로 미국 및 세계적으로 많은 발병과 사망을 초래하고 있으며 만성 간염은 간경화 및 간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쟁이 연구 발표으로 전염 및 치료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염은 5가지 바이러스가 원인 인데 이에 따라 A-B-C-D-E형 간염이 있습니다. A형과 B형 간염은 급성 질환으로 나타나고 B형과 C형, 그리고 D형은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A형과 B형은 급성질환만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 회복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B형과 C형 간염(D형은 B형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은 급성에서 만성으로 진행해 간경화 그리고 간암이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하고 생명을

문제가 됩니다.

미국 및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주로 C형 간염이 대부분이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는 B형 간염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에 많은 B형 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은 세계적으로 간질환의 중요한 질환으로 간경화 및 간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40억 7천만 명이고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미국에서는 1.26 million 이 만성으로 전염되고 있고 매년 3,000-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은 China, Korea, Southeast Asia 등 주로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에서 많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B hepatitis B virus)가 원인인데 이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로 8가지 genotype이 있습니다. 간에 침범한 인체 DNA cell과 합성되며 장기나 세포를 이니다. 급성으로 시작하며 만성으로 진행해 있는 만성 간경화 및 간암으로 발전합니다.

간염 간염은 대부분 회복되지만 5-10%는 만성으로 발전합니다. 아시아인 B형 간염은 거의 모계로부터 태아로 전염되기 때문에 대부분(80-90%) 만성으로 발전합니다. 약(약이-치수기)에는 중상이 있다가 30-40년 후 40-50

세 정도에 중상이 나타납니다.

중상이 없어도 혈액 검사를 하면 간염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아파 중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진찰, 그리고 혈액 검사 받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혈액 검사에 간염이 나타나지 않으면 B형 간염 예방 vaccine를 맞아서 미리 예방을 하라고 합니다.

간염 중상은 일찍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경미하거나 중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으로는 심한 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황달(jaundice)이 생겨 황달병이라고도 합니다.

만성으로 발전되면 별로 중상이 없고 피곤하거나 소화불량 한상이 있다가 간경화가 되면 복수(ascites)가 생기고 간과 비장이 커지며 몸이 붓게 됩니다.

진단은 혈액 검사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성, 급성, 그리고 어떤 genotype 인지,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현재 활동성인지 판단해서 치료로 달라집니다. 간사는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및 자손한테도 중요함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백신을 맞는 것이 생명을 관제해 예방할 것입니다.

미국 예방접종은 꼭 해야 합니다. B형 간염은 주로 주사를 맞거나 개인적으로 전염한 접촉, 성관계 등으로 인해 전염되는데 바이러스 유입 지역에서는 마약 주사나 무분별하고 난관한 성관계 대부분이 원인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머니로부터의 전염이 가장 흔합니다.

혈액 검사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혈액이 탁하고 나옴과 바늘을 옮기고 다닙니다.

내일 당장 두 잔대를 팔아야 하겠다 나는 큰 고민에 빠졌다. 이제야 세 사람들이 잔디밭을 기게소리만 들어와 나를 공격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와 아내가 서로 지를 붙 보았지만 별 수가 없었다.

결국은 세 딸들을 소탕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7)하고 벌(bee)을 죽이는 악을 사서 근처 The Home Depot에 갔다.

하지만 Bee를 죽이는 악은 찾지 못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방의 딸과 똑같은 이름이 그려진 딸을 발견했는데 "Wasp & Hornet Killer"라고 쓰여져 있었다.

오늘 밤을 소탕 작전 발로 잡을 수리부부는 총총하게 두 딸을 데리고

그날 밤 완전히 잠들었을 때를 기다렸다가 손 전등을 들고 아내의 웅변을 받으며 벌집을 죽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벌을 생각하니 소치고 나가면서 나를 주저하게 했다.

내가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딸들이 지금은 아주 관대하게 딸들이 자고 있을 터인데, 비록 땅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벌이 아니지만 인간에게 유익한 곤충인데, 벌에게 좀 소중하고 비참하게 고요한 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벌을 죽이게 될 수 있다 딸들이

이거 생각이 좋았다. 그러나 나의 손은 어느 사이에 들고 있던 killer(살충제)를 사용했기 우리 속으로 고요하고 있었고. 오지 말라! 꼭 하는 소리 들을 때 딸들 속에서 반응은 고요할 뿐이다.

동문 시 감상



서문석(의대 62) VA
미비인후와 두경부외과 전문
의, 현대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향일보 편집위원

복소리

동문 올리는 복소리는
복사물이 되어 떠나나다
물살처럼 퍼져
온으로 돌아간다

달밤 한가 속에 떠난다
복사가 울려라만 되는
복사(手話) 에베덴(拜堂)
은 지하(地下)에, 다른 세상에
숨어 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빛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용궁(龍宮) 속에 있다

아른 아른들이 갯나물 다
시 떼어내는
맑은 물 속에 있다

동문 올리는 복소리는
물결을 이따며
푸른 파도가 된다

바다 위에 찬란한
동근 푸르니 그리며
하늘을 찌는 무지개가 된다

하수시 하수시
사람들의 간결한
기승(新聲)가
비상(飛上)한다

그런 속사(密談) 속에서
수화 에베덴(拜堂) 복소리는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막힌 가슴을 열어주기 위해
울려라만 한다

*수화 에베덴은 청각장애우
(友)들의 교회를 말함**

생활 수필

Bee& Wasp, Hornet Killer



강준실(사대 59)PA

잔디를 깎는 일이 나의 정기적인 일인 지도 여러 해가 된다.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으로 알고 있으므로 같이 공생하는 심정으로 내버려 두었다.

다 잔디를 깎을 때에야 조금씩 그것을 밟고 지냈다.

그런데 이 날은 날씨가 정말로 여흥 생각을 하며 급한 마음으로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은 들며 휘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바나 손의 적당함을

우리 딸에는 꿀벌이든 말벌이든 혹은 말벌이든 다 별로 통한다. 그런데 열이 있는 bee와 wasp, hornet은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딸 열이 사재에는 bee는 꿀벌, wasp는 장수말벌, hornet은 말벌이라고 번역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동물사전을 보았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겨 주고 우리에게 꿀을 제공해주는 유익한 곤충이다. 그러나 wasp와 hornet은 꽃가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벌이므로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해로운 곤충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을 늦게나마 알게 되면서 그날 밤 사재집이 살충제를 뿌렸던 것조차도 조금은 사자지니만 한걸 아니까 기뻐졌다.

다. 꿀벌은 사람을 쏘면 그 일이 매우 지신도 결국 죽는다

그날 wasp와 hornet은 그 힘이 빠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도 이것들이 심는 행동, 생장,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재를 맞았으면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중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며 초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약을 처방 받는 것만으로도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치료제로는 주사약과 약(약이-치수기)을 사용하며 이 때에 interferon은 부작용이 많아 불편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antiviral agents(Entecavir, Tenofovir)가 나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사용에 유의합니다.

있거나 간염의 위험성이 있으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임신과도 간염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임신과도 간염에 걸리지 않기도 나타나지만 수가 가 태어나는 즉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또 임신과도 분만 및 출산 후 복통 태어나는 유예에 감염되지 않거나 혹은 전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A형에 예방 접종을 한 후, 아기가 생길 감염을 예방합니다.

이미 대만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만 예방접종(Baby Vaccination)을 실시해 만성 간 질환 및 간암이 예방되고 간염을 막고 간경에 전염되어 있어 악을 세이 잘한 것임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간염이 이제 만성 간 질환으로 간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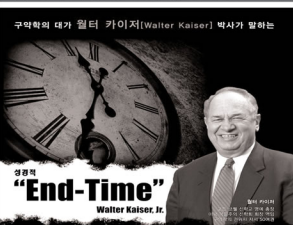
아직까지는 완전 근지는 안되고 있지만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해 간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간염 환자가 있거나 간염의 위험성이 있는 행동, 생장,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재를 맞았으면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중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며 초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약을 처방 받는 것만으로도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치료제로는 주사약과 약(약이-치수기)을 사용하며 이 때에 interferon은 부작용이 많아 불편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antiviral agents(Entecavir, Tenofovir)가 나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사용에 유의합니다.

미주 동문단체 및 동문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미주 동문 목회자들로 구성된 '율목회'
Walter Kaiser 박사 초청 특강 실시

동문 목회자 60여 명으로 구성
해 연중 4차례 정기 모임

미주 서울대 동문들로 구성된
'율목회'가 지난 9월 28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미주
신학대학교 및 임파누엘 선교
교회에서 3/4분기 정기 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 명예 총장인
Walter Kaiser 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실시했다.

'율목회'는 지난 1998년
'미주 서울대 동문 목회자
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탄생
한 것으로 그 해 6월 8일 로스
앤젤레스 소재 유나이티드 교

육관에서 교단을 초월하여 서
울대 동문 목회자들이 모여 영
혼들을 가슴에 품고 올랜더 목
회자와도 '율목회'라 명명하
게 되었다.

'율목회'에는 동문 목회자
6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연중
4번의 정기 모임이 있다.

그런데 특히 이번 3/4분기 모
임은 '율목회'만의 모임이 아
닌 미주 이민교회와 기독교계
에 잘 알려져 있는 임파누엘
회를 하나로 두었다. 그래서 기
독교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탁월한 강사들을 초청하
여 교단을 초월하여 많은 신학
생 및 목회자들이 배우고 도전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특
강 시간에는 고든 콘웰 신학대
학원 명예 총장인 월터 카이저
박사(Dr. Walter Kaiser)를 모
시어 특별 강연을 들었다.

카이저 박사는 'The Day of
the Lord'(주 날, 요엘 2:30)
을 주제로 강연해주었다.

카이저 박사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회장 역임했으며 구
약학의 권위자로 그동안 50여
권의 저술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유명한 명강의로 정평이
있다.

<요일면(논대) 78쪽 714-
204-5223>

뉴욕 동창회 김창수(약대 64) 전 회장

뉴욕 BNB 하나은행 이사 선임

뉴욕지역 동창회 전 회장이
며 본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인 김창수(약대 64·사진)
동원이 최근 뉴욕에서 새로
출발한 'BNB 하나은행'의 이
사(Director)로 지난 8월 30
일 선임되었다.

BNB 하나은행은 뉴욕의
우리 한인 동포은행 BNB 연방
은행과 한국의 하나금융이 하
나로 합쳐져 최근에 새로 출
발한 금융기관이다.

'BNB 하나은행'의 사의
이사로 선임된 김창수 동문
은, 지난 1964년 모교 약대를
졸업하고 다시 1968년 경원학
대학을 졸업한 뒤 1973년 도
시하버 NY에서 MBA를 받았
다. 그 후 지금까지 뉴욕지역
에서 공인회계사(CPA)로 활
태하고 있다.

거금으로부터 27년 전 BNB
회장의 창립 이사인 은행의 Ad-



viser와 지난 4년간 이 은행
이사로 일해 온 김창수 동문
은 이같은 데 우뚝히 이사의
에서 감사위원회(Audit Com-
mittee Chairman) 직을 맡게
되었다.***

원미랑 동문 북가주에서 전시회

나파에서 'Yachts & Things' 관
제제로 그칠뿐... 감칠맛 위에
펼쳐진 절경의 추상

종전작가 원미랑(미대 65) 동문
이 북가주 나파에서 열린
'Yachts & Things'라는 제목의
4인전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열린
세계 America's Cup 유수 대회에
배달왕이 '보도', '해초' 등
의, 물을 주제로 한 사원한 작품
들을 전시한 원미랑 동문은 "과
도가 부딪히고 깨져가는 에너지
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보았다"며 전시된 작품을 천
명하고 이번엔 전시된 20점 중
모두 'Yachts & Things'의 주제
와 연관된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나파의 'I'olk Gallery' 그리고
'Maison Gallery' 두 장소에
서인 10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
회에서는 원미랑 동문의 작품 외
해 조각가 Archie Hill, Giuseppe
Palumbo, 화가 Bruce Lauritzen
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나파의 성가시런 8-월의 작
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어 기뻐
합니다"는 원미랑 동문은 "우
리 동포들도 기회가 있으면 강

랑 위에 blow torch로 태워서 만
든 독특한 기법의 작품을 꼭 한
번 감상해 볼 것"을 권했다.

최근 몇년간 강철망 위에 blow-
torch로 태운 기법으로 작품들
을 펼치고 있는 원미랑 동문은
"불로 태워 조형이 드러나는 과
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호
호해진다"며 "결과에 연민이
없고 예술이 창조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
지는 추상적인 모습이 훌륭한 작
품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Yachts & Things'
를 위해 제작된 '보도' 등은 바
다의 파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
다의 에너지,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도와 물결, 그리고 바
위에 부딪쳐 산산조각 나는 물의
파편 등이 작품 속에 들어 있
고 말했다.

"해초"의 경우는 다양한 해
초 위에 강철망을 덧씌우는 수법
을 써 바다 밑과 화려한 색을 준
다. 바 "특히 전시회를 위해 화
려한 색채를 강조,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전시회를 위한 작품을 위해 도
미로인 신도 김광호 동문도 함께
제작하고 있다는 원 동문은 이런



작품들을 모아, 10월 샌프란시
스코에서 열리는 캘리포니아 디자
인 컨퍼런스 그들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강철이 주는 강함과 절망에서
벗어난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아
픔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원
동문은 "산림, 군용용 재료를 바
람으로 만든 단조로운 기법의 작
품이지만 완성된 작품들은 관
객들에게 부딪히고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와 닿는다. 내년 11월에
도 이 작품들을 서울에서 개인전
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교 미대 대학원을 마친 원
동문은 파도 공동 미술학과, 소
프론트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한
뒤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70년
부터 예술과 강사로 활동하다 도
미, 84년부터 베이 지역에서도 작
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중 전통 음악과 탬뎀 합
계...서양 어우러지는 특별한
크로스오버 공연

지난 9월 20일 오후 8시 뉴욕 플
러싱 타운 홀(137-35 41st 스트리트)
에서 한·중 전통 음악과 서
양의 탬뎀이 어우러지는 특
별한 크로스오버 공연이 열려 많은
관객을 받았다.

우리 한국의 대표 주자로 나선
김진희(한국 국악과·사진)
문은 이같은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발
호는 메일을 조차하는 '전자 자
문고' 연주회를 소개했다.

이 두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세계적 탬스 탬스 플라이 '봉바
바'이라는 신개념 탬스 공연
을 펼쳤다.

김진희 동문은 "사조편과 나는
20여 년 동안 호흡을 맞췄으며
동방 연주자들이 늘 한국으로
이모직고 있다. 세 사람이 일
정하게 이르러 뜻깊은 공연이
이 될"이라고 "트리오 공연에
더해 사조편과 나의 듀오 플라이

사조편의 듀오 나의 듀오 등 다
양한 형태의 공연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

김진희 동문은 모교 유대 국악
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80년 미
국으로 이주해 샌프란시스코 밀
스 칼리지에서 전자음악으로 석
사 학위를 받았다.

김 동문은 자체 제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거울고로 연주하
는 것으로 이같은 공연을 펼치
고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크로스오버 연주 뿐만
아니라 작곡에도 두각을 나타내
지니 2011년 구원회원 수상 작
가로 선정됐으며 제츠, 플레시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창작곡을 내
놓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25년간 세계를
돌며 연주해오면서 느낀 금융 모
든 수필집 '가문고 탬고(Komango
Tamgo)'를 출간했다.
원혜는 김진희, 김해이브에 거
주하고 있다.***

살가 조의를 표하다

> 추경문(수학 84·캘리포니
아) 동문 도전상- 지난 9월 16

일 한국에서
추경문(수학 84·캘리포니
아) 동문 도전상- 지난 9월 28일
지침으로.

치과의 부영무 동문 CA 한의사 협력

모교 치과 출신으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부영무 치과대학
은 영웅 군인 부영무 동문 50대
중반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한
의사 시립에 협력해 커다란 흥
미를 끌고 있다.

부영무 동문은 그동안 서니배
리에 있는 국제 한의대(CUHM)

에 개원해 있는 한국이 프로그
램을 지원할 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 국제 한의대에 한국이 프
로그램이 개설된 것은 2009년
9월로 1년 3학기째이며 졸업이
마지 기를 3년이기인 전 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짜여졌다. 강좌는 펄링 야간,
토요일 상영 수업이다.
학생들이 주로 직장인이나 이
런지민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
이보니 매 학기 졸업생 수강
이 비교적 많은 가운데서도 지
난해 여름 1기 졸업생을 배출
했던 국제 한의대 한국이 프
그램이 이번 여름에는 5명이
원한 의사 시험에 도전해 전원합
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2대 미주 동창회(회장 오인환·회장단 63) 회장단의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2년의 임기내 「지역 동창회 순회 탐방」이다.

이는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각 지역 동창회간 친목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은 물론 더욱 긴밀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인환 회장은 우선 지난 9월 7일 Heartland 동창회의 제12대 정기 총회 및 동창회 발령에 맞춰 이 지역을 직접 탐방했다.

Heartland 동창회는 사실상 미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6개 지역 동문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 지역의 동문들의 인접지역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민 Heartland」라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을 상징하는 심장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인환 회장은 Heartland 동창회의 이날 모은 행사 관람은 물론 행사 현장에서 Keynote speaker로서 「Group Intelligence」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이어 다음 날 오전 신구 회장단 및 이사단을 포함한 임원 회장과 미주 동창회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동창회 정기 총회= 오인환 회장은 격려사에서 「Heartland 동창회는 6주째 모인 지역 동창회지만 마치 'mini 미주 동창회'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오인환 회장은 또 각 지역에서 일하는 40여 개사의 이상준을 해와 모인 동문들이 호텔에서 1박 2일로 golf 대회, 정기 총회, 만찬, 이사회 등의 행사에 함께 하는 전통에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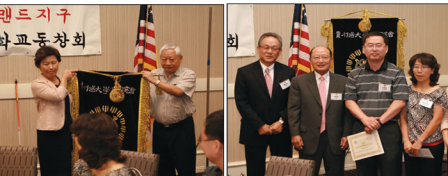
제12대 정기 총회 및 동문의 탐방 행사는 Heartland of the Sheraton Hotel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제12대(2호대) 회장인 기희사와 이명준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후 사업보고와 재무보고

<제12대 동창회장단 사업> 지역 동창회 탐방 <1>Heartland 동창회

“미국서 점 하나 찍으면 Heartland!”



랜드 지구
학파동창회



1(첫 사진) Heartland 동창회 정기 총회에 모인 동문들이 오인환 회장을 중심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 사진) 구명순(2호대) 회장, (가운데 사진) 신구 이사장(2호대) 회장, (오른쪽 사진) 이명준 이사장이 참석행사에 적극 중점을 두었다.

로 이어졌고 신임 이상장 회장과 박순출(올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2일, 사석에서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에 의해 지난 해까지 총 40명, 올해까지 모두 51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수

여졌다. 곧 이치원 사부총장을 의한 글드레드 질과 발로 부 Gross Champion(노벨상 부문), Net Champion(매뉴얼 부문) 및 남녀 1-2 Longest와 Closest 등 일사장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다. 간단한 오락 program과 작은 선물로 quiz 놀이 winner에 주어졌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그 뒤 University of Kansas 유대 전쟁을 교수(올대) 9일 일순원 동문 부근에 의한 특별 Viola 인주가 있었다.

이 일순원에서는 Antonio Vivaldi: Sonata of George Germain: Three Prelude of 아름다운 비올라 소리가 실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오인환 회장 강연= 이어서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의 「Group Intelligence」를 주제로 한 Keynote Speech가 있었고 마지막 으로 이주원(미대 92) 동문과 Dennis Cho가 주관하는 오락/학 후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의 끝을 맺었다.

다음 날인 9월 8일 아침에는 선 임원들과 신임회장이 초대하는 Breakfast 모임 후에 Heartland 동창회 이사회와 오인환 회장과 그의 간담회 Sheraton Hotel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동문들간 화기애애한 친교의 기회가 되었고 이어 일련 이사회에서 구 이상원 회장이 이어 배구대 신임 이사장이 선출됐다.

▶일련회의 간담회= 오인환 회장 Heartland동창회 이사회와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Heartland 동창회 원로인 김효원(지대 52) 사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첫째는 미주 동창회와 지역 동창회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Brain Network Workshop같은 행사도 지역 동창회와 접촉하여 내담되게 해야 할 것이다”고 순회 강연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분야에 전문적인 동문 자원을 통해 연사로 참여하면 더욱 뜻있는 학술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는 모교에서 순회 공연단과 이주원(지대)의 공연으로 보내주어 “미주 동창회”고 제의했다. “세월이 흐르면 미주 동창회가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Heartland 동창회 이모저모

<동창회 역사>

Heartland 동창회는 17년전 오인환의 미주 동창회 창립이 시작됐다.

이후 몇몇 있는 상태에서 동문을 찾아내 시작하신 발기인 선배(이교과·오계숙·김효원·이재명·배규태·라노한·김용환)들의 수고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창회는 미국의 심장부 대서양-서해안의 광범위한 6개주 Kansas-Missouri-Oklahoma-Nebraska-Iowa-Arkansas 주를 cover하고 있다.

동창회에는 13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일부에는 약 100명 정도가 들어 있다.

Arkansas 주는 아직 아무도 등록해 있지 않다. 지역이 넓다 보니, 너무 흩어져 있어 동문들의 이송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별 세로로 동문 발원은 매우 어렵다. 가까이에서 수주할 수 있는 동문은 없는 것



1 왼쪽 사진은 Heartland 동창회 이사회 및 임원들과 오인환 회장의 간담회 장면. 오른쪽 사진은 이날 미주 동창회와 지역 동창회간 유대관계에서 많은 자원을 갖춘 김효원(지대 52) 동문 모습이다.

를 인용 중 하나이다. ▶Group 친선모임= 긴 겨울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 2-3월이 적당한 group끼리의 친선모임을 동문 자택이나 호텔 자택에서 거행하고 있다. 재미 있는 주제와 게임을 하고 간담회를 거행하고 있다. ▶Golf 대회= 4월 말 춘계 golf대회를 하는데 team play로 진행되고 있다. 저녁에는 golf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동문들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이 있다. 장소는 동문 자

택에서, 전 동문이 음식을 준비하는데는 potluck 형식이다. ▶정기 총회= 9월 초 정기 동창회 및 동문의 밤 행사를 가진다. 낮에는 Kansas City 근지 golf장에서 골프대회, 저녁에는 Kansas City Hotel에서 동문회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의 1부에서는 매년 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장학생 부도 초청된다. 2부에서는 음악 program과 함께 시의 및 keynote speaker의 주제강연이 있다.

올해는 19인 미주 동창회장의 「Group Intelligence」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에는 연회장과 친선회장(대로는 이사장)이 전 동문들 hotel 아침식사 제공했다. 이사회에서는 간단한 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술년 파티= 12월 첫 주에는 Christmas 전 술년 Party를 연다. 장소는 Christmas장식이 아름다운 동문 자택으로 동문들이 장식하고 해오는 여러 음식으로 Holiday season을 즐긴다.

다. 간단한 오락 program과 작은 선물로 quiz 놀이 winner에 주어졌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e-newsletter= 3-6개월마다 e-newsletter를 받고 있다고 있다. 행사, 수필, 여행, 전공 분야 상식, 음악, 문물, 공과 등을 알리며 e-mail로 전 동문과 동창회에 보낸다. web site(www.heartland.org)는 미주 동창회(www.heartland.org)에 link 해 있다.



남가주 동창회

Bishop 가족캠핑 & 가정의 날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성찬 문리대 65)가 지난 9월 노동절 연휴를 맞아 Sierra의 유명한 관광지인 Bishop에서 2박 3일간 가족 Camping Day 행사를 실시했다.

이보다 앞선 8월 17일에는 남가주의 명소인 Hollywood Bowl에서 가족 야유회와 함께 한 여름밤을 멋지게 수놓은 클래식 감상의 밤을 보내는 가정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백일장 행사도 실시해 동문들의 인기를 모았다.

▶ **Bishop 가족 Camping**= 이 행사는 남가주 동창회의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잡은 것으로 가장 인기있는 행사다. 해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Sierra의 Bishop에서 2박 3일간의 동문 가족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캠핑장은 세코이아 파크, 킹스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동쪽편인 Eastern Sierra에 자리잡고 있다. 가까이에는 맘모스 스키장, 호수, 광대한 사막이 아우러져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특별하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남기주 동창회는 여름이 다 가
기 전 대자연의 품 속에서 사랑
하는 가족과 또 동문들과 함께
우애를 다지며 각자 취향에 따라

산악회, 철벽지 회원을 및 여러 전문가들의 안내로 hiking은 물론, trout 낚시, rock climbing, mountain biking, sightseeing, 유황 온천욕 등을 즐겼다.

또한, 토요일에 캠프 일일 밤에는 각각 문리대 등창회와 법대 등창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바비큐 저녁식사와 함께, 캠프파이어로 한층 분위기를 돋우며,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빛들을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직접 운전하기 힘든 동문
들과 대중 교통편이 필요한 동문
들을 위해 대형 관광버스를 대절
하여 이용했다. 캠프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동문들을 위해서
단체장과 가까운 지역에 모텔을
당첨로 예약해두어 동문들의 관
의를 최대한 도모했다.

▶Hollywood Bowl 가정의 날= 남가주 동창회가 지난 8월 17일 Hollywood Bowl에서 야유회와 '영성폭발(?)' 가정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매년 가정대 동창회를 중심으로 간호대 동창회 등이 협조해 이루어지는 야유회를 겸한 행사다.

토요일 오후 5시경 Hollywood Bowl과 연결된 공원에서 야유회를 시작으로 야유회가 끝난 다음



↑ Bishop 가족캠핑은 Hiking 팀과 Mountain Biking팀, Fishing 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Bishop에서 South Lake까지는 차로 약 30분 거리로 South Lake에서 Long Lake는 왕복 4.5 마일이다. Mountain Biking 팀은 Mammoth Mountain Ski Lift에 모여 Biking을 시작했고 Fishing 팀은 Crowley Lake의 South Land-ing에서 fishing을 했다. <사진= 휴스턴 남가주 미대 동창회집>

Hollywood Bowl에 입장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행사다. 올해는 '나성의 명물'로 평판이 높은 Hollywood Bowl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밤, 가족 피크닉을 보낸 것이다. 즐겁아 3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역대 이 행사 중 가장 기록적인 참가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날 오행시 대회, 어린이를 위한 사생대회도 곁들였다. 또한 백일장도 실시됐다. 백일장에서는 권국원(공대 69) 동문의 부인 권명주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미대 홍석애 회장이 디자인한

로고 I Luw(하트 모양) U 혹은
SNU 어린이 T Shirt 뒤에는 I Luw
SNU와 흥 화백의 Cosmic Dream
(우리들의 offsprings 어린이를
위한)등의 선물도 아주 좋은 반
응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8월이지만
남가주는 날씨의 천국, 여행의
요람이다.

오후 8시경부터 시작된 차이코프스키의 밤은 동물들은 물론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주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멋진 음악과 대포 소리, 그리고 환상적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는 피날레

'1812년 서곡' 연주였다. 다음
은 '위키백과'에서 옮겨온
'1812년 서곡' 배경 설명이다.
'1812년 서곡'은 표트르 일리
치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관현
악 서곡이다. 그는 이 곡을 나폴

레옹의 러시아 공략 실패와 퇴각 및 나폴레옹 군대의 케텔(이 일은 1812년 일어난 사건으로서 나폴레옹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을 기념해 작곡함.

작품 내 일련의 대포 발사 시퀀스가 유명하며, 야외에서나 혹은 야외 축제에서 공연할 때는, 진짜 대포를 발사하기도 한다. 실내에서 이 작품을 연주할 때는

때때로 컴퓨터가 생성한 대포 소리를 사용하기도 하며 큰 배럴 드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악보 상에서 총기 혹은 대포를 사용한 열 개 남짓한 작품들 중의 하나이며, 카리움을 요하는 몇 안되는 작품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서곡은 모스크바에 위치한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1882년 8월 20일 초연되었다. 참고로, 이 대성당은 이후 1930년대에 스탈린이 철거하였다.***

←왼쪽 사진은 Hollywood Bowl백
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권국
원 등문(왼쪽) 부인 권명주(오
른쪽)씨에게 심사위원 김운회
시인(공대 68 김병연 등문 부인)
이 시상하는 장면이다. 오른쪽
사진은 자유회 행사가 끝난 뒤
참석한 동료들의 기념사진이다.





뉴턴앨런드 동창회

Newton Auburndale Park 아우유헬

뉴턴앨런드 동창회가 지난 9월 14일 Newton Auburndale Park 에서 가을 아우유헬을 성황리에 마쳤다.

아우유헬은 12시부터 시작됐으며 이에 앞서 11시부터 이사회가 열렸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등을 마련했으며, 이와 더불어 푸질한 음식 및 각종 상품도 준비되어있다고 한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주회측에서 준비한 음식과 바비큐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함께 하는 동문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문회'에 대한 신임 장수인 회장의 인사말

과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이날 뉴턴앨런드 한인회의 한신 우 회장이 참석하여 한인회의 비전 및 1천 명 정회원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어 물 풍선 던지기, 팽이, 파구 등 모든 연령층에게 쉽고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간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당분회에서는 다음 행사로 10월 29일 Blue Hills Reservation에서 단풍맞이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과 그 밖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 지난 행사 사진은



↑ 뉴턴앨런드 동창회 동문 가족들이 아우유헬 행사에서 풍선파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http://sites.google.com/site/nyuan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뉴턴앨런드 동창회에서는 현재 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록 업데이트 <글> 도심주(공대 84)



밴쿠버 동창회

김홍자 회장 집에서 장학금 모금

밴쿠버 동창회의 김홍자(유대 62) 회장이 동문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BBQ 파티를 지난 8월 27일 회장 자택에서 열어

주어 동문들이 맛있고 푸짐한 음식과 함께 수려한 로키 포인트의 경관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 동문들이 김홍자(유대 62) 회장 자택 테라스에 모였다.

김홍자 회장이 현재 거주 중인 곳은 로키 포인트가 내려다 보이는 포트루디의 고층 콘도미니엄이다.

이날 넓은 발코니에는 3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를 하였다.



↑ 김홍자 회장이 거주 중인 콘도미니엄은 로키 포인트의 김 홍자(유대 62)가 소유하고 있다.

먼저 밴쿠버 동창회의 최고 원로인 박민철(48학번) 동문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었다.

이어 박하일 동문은 밴쿠버 동창회의 장학재단 설립 취지 및 경과를 설명해 주었으며 김홍자 회장이 인사말을 한 후,

본격적인 맛있는 바비큐 파티가 벌어졌다.

이날 동문들은 즐거운 담소와 함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최승연>>



뉴욕 골든클럽

Mt. Schunemunk등반 & 골프대회

뉴욕지역 골든 클럽(회장 이준행·공대 48) 회원들이 지난 9월 Mt. Schunemunk으로 등반 산행을 다녀왔다.

또한 포코니에 소재한 Mount Airy Golf Club으로 2박 3일간의 리조트를 즐기는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등반 산행= 지난 7-8월에는 여름철 지나친 무더위 탓으로 이를 피하느라, 회원들이 산행 대신에 바다 낚시와 송어피 피크닉으로 대체한 바 있다.

9월 산행은 오랜만에 Seven Lake/Harriman State Park를 벗어나, Woodbury Outlet 서북쪽

에 있는 Schunemunk Mt.으로 등산을 갔다.

이 산 등전의 길은 특이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등근 자갈과 시멘트가 잘 섞인 콘크리트 형상을 띠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오랜 옛날 태고 적에 바다 밑에서 퇴적된 암반이 지상으로 솟기되어 올라오면서 바위 능선이 되었다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설명이다.

이 날 회원들은 Trailhead를 출발하여 능선 중턱, '먼저간 부인을 그리워 하면서 애절한 마음을 기리기 편에 전한다'라고 적힌 전광이 좋은 뷰까지

↑이날 Mrs. 조승자(조달훈 동문 부인), 김재영(공대64), Mrs. 김재영, 조달훈(사대67), Mrs. 손경택, 손경택(농대57) 등등, 그리고 게스트로 건강클리닉을 운영중인 송성훈 원장이 참가했다.

시함을 탈리고, 능선 바위길 위에서 즐거운 점심 식사와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점심은 특별한 손경택(농대 57) 부회장 가족에서, 양념 불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아재와 함께 넉넉히 준비해 오셔서 모처럼의 나들이에는 아주 안성맞춤의 푸짐한 점심 식사가 되었다.

이에 회원 모두가 손경택 부회장 가족에게 깊이 감사할 줄 알았음은 물론이다.

또한 게스트로 참가한 건강 클



리닉의 송성훈 원장은 산행 중일 때마다 회원들에게 차와 허히, 그리고 등에 대해 안바를 비롯한 마시지 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이며 풀어주었다.

송성훈 원장은 이날 뿐만 아니라 골든 클럽의 모임에서도 인상생활 중 피로 회복을 위한 Stretch workshop을 주관해주곤 했다. 회원들은 송 원장에게 깊이 감사할 줄 알았다.

▶골프 리조트= 작년에도 이어 두번째로 포코니에 소재한 Mount Airy Golf Club에서 골든 클럽 회원과 가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박 3일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골프장 난이도(scope)가 130이며, water hazard and dogleg가 많아 어려운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법한 날씨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며 평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지난 해 이같은 골프여행에서 수상권을 휩쓸던 손영철(공대 68) 회원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코파자 회원이 등 두번에 근접하자까지 추가하며 상금 랭킹 1위가 되었다.

최구진·최준희·한태진 회원도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목요일 저녁식사 후 진행된 경품추첨에는 송성훈·이대영·조승자 등 3명이 당첨되었다.

이준행 회장이 특별 기증한 호당 이세영님의 서화작품은 정인식 동문이 받았으며, 홍용에 부응하여 추가로 기증한 서화 작품의 예비 당첨자는 장동만 등 3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한 경품구입, 점심 도식 및 음료수 등 행사 준비와 식사생식, 제철 및 현대적 조식 등 행사진행을 주관해 주신 조달훈·조승자 부부에게 다시 한 번 감사사를 드린다.

<골= 송성훈(공대 64)>



↑골프대회에는 손경택(농대 57)·이대영(문리대 64·이별민) 부부, 이준행(공대 48·이세영) 부부, 장동만(문리대 55·고재자·사대 58) 부부, 장인식(상대 58)·조달훈(사대 67·조승자) 부부, 최구진(약대 64)·최준희(의대 58)·한태진(의대 58)·홍용만(공대 64) 등등 등이 참여했다.



▶Mount Airy Golf Club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골프대회가 끝난 뒤 회원들이 시상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입상자가 이세영님으로부터 서화 작품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 이 날 고재자·이대영·홍용만·최구진·한태진·조승자·조달훈·최준희 등등이 입상해 각각 상을 받았다. 이 밖에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이어졌다.***

판악세대/Acro광장

할인점 살인검



민경훈(법대 78)
미주 한인일보 논설위원

사건에서는 조선 왕조의 고인이었다. 어떤 나이에 고인이 되고 싶은데 돌아갈 후 도를 닦아 당대 최고의 승려가 된다.

명상과 설비으로 삶을 마감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온다. 그가 72살 되던 해인 건재(建재)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노년을 아픈노 수발을 도어 생계를 무투로 떠날 일장사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책이 아니라 물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가장 큰 죄로 여겨 금하고 있는 데도 승려의 삶으로 살든 고 죄를 죽이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자 서사대사는 답한다. "내가 든 칼은 무한한 백살을 드러내는 생명의 칼을 죽어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다. 내가 재물을 얻든 죄도 자살이 될지언만 백만 번의 죄도 배제되지"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큰 죄인이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큰덕이 있다. 천천만번의 아연이아니 배운 것은 살인마의 칼을 쓰는 것이 한 번이다. 재물을 가장 많이 죽인 이순신은 만민을 가장 평온한 것으로 끝을 이었다.

쿨한 미국, 뒤끝의 미국



노준현(문리대 82)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장

미국, 참 알다시피 모를 나라다. 장 말로는 맞지만 다양한 문화와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50년의 서로 다른 나라(State) 연합이라고 지칭하는 게 보다.

10년 남짓한 시카고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을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을 개인적 생각은 어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국가, 개인적 이치만 이러한 아픔을 듣는 데는

세계 각국의 범죄계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남을 죽이는 정당방위의 범죄가 아닌 죄이다.

필다 살인범인 진도로는 마찬가지다. 진과 정은 범죄와 관련한 적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자 하였다.

서양에서 '정의로운 전쟁'을 처음 이론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기독교 최대 신학자 중 한 사람 오그스틴이었다. 그는 무력이 아니고서는 악을 쓸 수 없는 악을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을 고하고 밝혔다.

오그스틴과 함께 악을 이루는 기독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합법적인 경우에 피해, 이인이 아니라 의로운 목적으로, 범죄를 이룩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적의 침입으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정당방위는 외적의 여지가 없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집단 살육을 할 것이냐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하는는 종 두 종류로 나뉘었다. 1994년 미국에서 이루어 졌다. 1994년 미국에서 이루어 졌다. 1994년 미국에서 이루어 졌다. 1994년 미국에서 이루어 졌다.

사회의 이를 막기 위한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인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발생한 반도에서 세비어에 의한 인종 차별 10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국제사회의 나토도 공격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생명을 가져왔다.

미국 시민들이라는 2백여 명이 있는 나토에 이미 10만 명이 사망했고 공격에는 정당한 화복 무기 공격으로 이미 4000을 포함, 1천4000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는 어느 나 사이의 화복무기를 휴전 판에서 무너져서 서서히 합의하고 있다.

이것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무력을 쓰지 않고 화복무기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상황전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연방수사국이 도청한 그의 통화 내용은 중에는 오바마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다.

반면 지난 2000년 공화당 조지 부시와 대선에서 맞붙은 민주당 앨 고어는 현재 부시에게서 받았던 연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수락했다. 이후 고어는 재출마 대신 환경보호운동에 전념,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다. 지난 2008년 일리노이 연방의원인 조지 알렉산더가 당선됐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40년 암과의 전쟁



차진영(의대 76)
미주 동향회보 논설위원

1971년 12월 나는 대통령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암 퇴치는 아직도 요원한 공이다.

과학자들은 몇십 년 전에도 가뭄을 이겨내고 생명을 구했다. '항암제'와 '세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성공한다면 암이 백 살을 앞 치료해 행을 일으켰 것이다. 심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내몰고 있는 지금도 있다.

백신이 그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백신으로 암종(암종)처럼 예방이 가능할지 모른다. 최근 뉴스 위크지에 여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암은 '정확한'이란 악성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유전'을 의미한다. 암세포가 가진 것과 똑같은 유전자를 유전하는 직접적 방법인 암, 이란 유전자를 '항원(antigen)'이라 부른다.

유전자를 암세포에 암 T세포(면역체계의 백혈구)를 유도체한 유전자를 공격하여 암세포를 없애는 가진 특정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T세포의 생산을 촉진한다. 우리 몸이 자체 세포를 공격하는데 있어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암세포를 공격해 조정하면 면역체계가 암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암세포 백신이 암을 파괴하는 치료제(Immunotherapy)가 될 수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10년 미 식품의약국(FDA)은 프로스트 전립선 암 치료제는 프롬프론(Provenge)백신을 승인했다. 다른 백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최근 켈스비나 다나 연구진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 백선은 관해(remission)증상이 완화된 상태(가치)가 1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대 이 백선은 약한 소문인 폐암, 난소암, 골수암, 흑색종도 치질할 수 있을지라도 믿는다. 화학과와 의학을 공격하는 백선도 있다.

백신의 치료는 암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백선과 과학자들은 암 치료의 핵심을 일으킨 장애물을 고쳤다.

암은 매우 복잡한 세포가 완성된 '생화학'적 과정을 끝까지 부수는데 이 때문에 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immunotherapy)를 위한 암세포를 공격하는 직접적 방법인 암, 이란 유전자를 '항원(antigen)'이라 부른다.

유전자를 암세포에 암 T세포(면역체계의 백혈구)를 유도체한 유전자를 공격하여 암세포를 없애는 가진 특정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T세포의 생산을 촉진한다. 우리 몸이 자체 세포를 공격하는데 있어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암세포를 공격해 조정하면 면역체계가 암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암세포 백신이 암을 파괴하는 치료제(Immunotherapy)가 될 수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10년 미 식품의약국(FDA)은 프로스트 전립선 암 치료제는 프롬프론(Provenge)백신을 승인했다. 다른 백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최근 켈스비나 다나 연구진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 백선은 관해(remission)증상이 완화된 상태(가치)가 1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대 이 백선은 약한 소문인 폐암, 난소암, 골수암, 흑색종도 치질할 수 있을지라도 믿는다. 화학과와 의학을 공격하는 백선도 있다.

백신의 치료는 암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백선과 과학자들은 암 치료의 핵심을 일으킨 장애물을 고쳤다.

암은 매우 복잡한 세포가 완성된 '생화학'적 과정을 끝까지 부수는데 이 때문에 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immunotherapy)를 위한 암세포를 공격하는 직접적 방법인 암, 이란 유전자를 '항원(antigen)'이라 부른다.

유전자를 암세포에 암 T세포(면역체계의 백혈구)를 유도체한 유전자를 공격하여 암세포를 없애는 가진 특정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T세포의 생산을 촉진한다. 우리 몸이 자체 세포를 공격하는데 있어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암세포를 공격해 조정하면 면역체계가 암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암세포 백신이 암을 파괴하는 치료제(Immunotherapy)가 될 수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34호 2013년 10월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암세포는 암 치료법과 완전히 반대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런 치료의 반대파는 많은 대체요법만 다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암과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중요성이 중앙 연구자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사실적인, 그러나 비현실적인, 그래서 재미없는 'The Bicycle Thief'



박준천(문리대 79)
변호사(OA)

얼마 전 주말에 영화 '자전거 도둑(The Bicycle Thief)'을 봤다.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영화라기에 '아직 미결 못 봤다나...' 하는 약간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유명한 영화인지 분명 초등학로 시절에 들었던 텔레감독기 Vittorio De Sica라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영화의 배경: 영화의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이탈리아 로마. 경제는 파탄에 있고 사람들의 생활이 없다.

은 총재가 거대한 노동자 Antonio Ricci는 간신히 취직을 하는데 벽돌을 거리에 팔고는 있다. 그런데 조인이 없으니 반드시 자전거가 있어야 한다.

주인공은 얼마 전에 자신의 자전거를 전당포에 맡겨 놓고 돈을 얻어 은 되며 당장은 자기가 없다. 돈이 없으니 새로 살 수도 없다.

자전거가 없던 얘기를 하니 폴 아모는 말이 나오는데 "No bicycle, no job." (이 대목에서 관객들은 "아, 이래서 주인공이 자전거를 훔치느냐?"로 지레 짐작하게 되는데... 아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 아내가 파산성이다. 친대 아들을 다 거두어다가 전당포에 맡기고 자전거를 훔쳐 온다. "이불 없어도 살 수 있지?"라고 하며...

가난한 사람의 삶, 나 자신 어떤 시절 권리가 했던 가난이었기에 가슴이 아파온다.

주인공은 이제 취직이 되어 돈 벌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이 벅

차 온다. 주인공은 아내가 싸 돈 도시락을 줬더니에 넣고 회를 차서 먹는 줄근을 본다. 평소 밝은 의사가 직원들이 자라 진사미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데 건사마리를 들고오는 잘도 자전거를 올린다.

▶탐복 자전거를 도둑맞고: 벽보를 붙이고 있는 사이에 쥘 같은 녀석이 눈치를 살피더니 아들, 주인공의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그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이고, 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귀한 생필품이기...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쫓아 가지만 놓치고 만다.

당연히 경찰에서 가서 신고를 하는데 경찰은 도둑이 아니다. 직접 찾아내라는 말 밖에.

낙담했지만 그래도 그는 친구와 함께 자전거 시장에 가서 부지런히 찾아본다. 그러나 하사.

그러다 도둑이 자전거를 넘겨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찾아 가지 못한다.

도둑과 대면하여 도둑을 찾아낸다. 선배에 들어가 미사를 방해하면서 자전거 노인을 잡아먹는 도둑의 주소를 알려주지만 이

이 정장은, 아내가 남편으로 부터 편지를 받으니까까지도 돈에 찾아 갔었고, 남편이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정장이.

침박채진 주인공이 아들을 데리고 경찰이 집을 서둘러 찾아가는 장면은 그 뒷도둑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애환이 느껴진다.

정장이 할, "자전거를 금방 찾으면 정장이 못 찾는다..." 이런 것, 참 절망적이... 또 돈은 날라간다.

그런데 경찰이 많이 맞았는지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도둑과 마주한다. 이번엔 둘 놓치고 도둑의 집에까지 간다.

그러나 형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도둑. 동네 사당에도 찾아가지만 안된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돌려준다. 돈 못먹을 맛을 본 것은 험한단 상황이 연출되는 데...

아들이 빠져 나간 경찰을 불러온다. 그러나 집안을 수색해도 자전거는 물론 없고, 숨도 없고, 얼굴도 확실하게는 못 보고, 게다가 도둑은 열거지 친 제인이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 주인공은 경찰 고발을 포기한다.

도둑의 동네에서 나온 아버지 아들은 하업없이 걷는다. 영화 내내 두 사람은 걷는다. 아마도 걷는 장면이 많기로는 이 영화가 단연 1등일 것이다.

그러다 속주관 근처에 수많은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노인은 밤이라도 먹고 하자며 자전거를 가는 차 한대를 사려 제 버린다.

이렇게 자전거를 찾아내려서 아버지를 일할 삼 남 아들 Bruno가 내다 동행한다. 반바지에 양복 취치려려는 입은 모습이 창경된다. 관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은 불일립는 사실. (Bruno의 배우, 상인 배우로 상공했다 금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수확 성실함이 되었고 그 전 몇 번 출세이 전부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좋은 차가고 자 없는 노으로 출도 사가지고 서을 한다. 그런데

도둑과 다시는 정성이 다 손 들어온다.

▶점장에게 찾아가: 월급 계산은 해보니 그 직장을 속하기 싫으니 안된다. 그 직장을 유지하려던 의도하루지 자전거를 훔쳐야만 한다. 저 푸라가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장이에게까지 간다.

← 'The Bicycle Thief'의 이탈리아판 영화 표지. Enzo Staiola, Lamberto Maggiorani(아버지 Antonio Ricci 역)와 Enzo Staiola(아들 Bruno Ricci 역) 주연.



들의 필요함이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영화는 전체적으로 애잔하다. 흑백으로 찍혔는데(1948년도 나왔으니 당연히 그런 흑백 뿐이었지만), 흑백이 영화의 분위기를 더 잘 보여준다.

▶광장 도둑질을 캐슬: 주인공은 전선 배우가 아닌 공상 노동자를 캐스팅해서 주연으로 썼다. 이 영화가 비평가들 사이에 너무나 호평을 받은 이유가 Neorealism의 선구자 작품들 사이에 서 있는데, 주인공을 전선 배우가 아닌 비평가들, 비슷한 직업의 비평가들 캐스팅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배우들은 어느 나라나 많은 출연으로, 인트로, 상영 생활을 즐기며 가난한 사회 하층민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마련인데, 영화 속 인물들이 현실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비평가들은 높이 산 듯하다.

사실적이라. 그런데 1948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편견이 많은 오래된 영화라는 느낌이 들게 않는다. 어쨌든 주인공 배우는 전선미는 아니지만 주인공의 애환이 그대로 얼굴과 옷에 묻어 있다. 아름답고, 지고 고, 바지, 가슴에 보여주는 친밀한 웃음, 과일, 제빵, 낙물, 물기, 이런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손을 잡은 아버지와 아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그는 아들을 집에 가라고 보내고는 도둑질을 감행하지만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 주인이 쫓아나오고 군중들에게 붙잡힌다”

동문 시 감상



김태한(법대 46)
필라델피아

한강

유유하 흐르는 한강가에 서니
옛 이야기 한 조각씩
떠올라니 내친구는

동 시 남북 육해산을
가득 실은 뽕실들

황토색된 뽕색이며
물결을 떠는
모두들 달려나와
환호성으로 맞았었지

너는 알고 있지
일본군 무장은 입점제한
장문사상식 지라한 관용장군
같은 혼외친
빛나는 승전

오곡 하나 나라위해
물과 웃던 그 광적인

너는 보았지
한강아, 한강아
이 나라를 지켜다오
자손들에게까지

넘치는 부흥하고
만남이며 흐르라

사랑하는 한강아
영원히 영원하게... ***

대체적으로 일품한 나 아들은
그다. 애 반란이 성숙으로
습득 거갈 뿐이요... 가난한 집
의 한남. 무능한 아버지가
대신하여 하는 그들의 성장기의
영향을 미리 보여 주는 듯하다.

▶비현실적 요소: 그러나 내게
이 영화는 실망이 없다. 소년만
전선 시를 썼고,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내전 지
후한 현실도 다 거론했다.

필가 이렇다 할 만한 스토리가
없다. 의해서 만들어진 나
왔으니 당연히 그런 흑백 뿐이
었겠지만, 흑백이 영화의 분
위를 더 잘 보여준다.

▶광장 도둑질을 캐슬: 주인공
은 전선 배우가 아닌 공상 노동
자를 캐스팅해서 주연으로 썼
다. 이 영화가 비평가들 사이에
너무나 호평을 받은 이유가 Ne
orealism의 선구자 작품들 사
이에 서 있는데, 주인공을 전
선 배우가 아닌 비평가들, 비
슷한 직업의 비평가들 캐스
팅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배우들은 어느 나라나
많은 출연으로, 인트로, 상
영 생활을 즐기며 가난한 사
회 하층민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마련인데, 영화
속 인물들이 현실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비
평가들은 높이 산 듯하다.

사실적이라. 그런데 1948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쨌
든 편견이 많은 오래된 영화
라는 느낌이 들게 않는다. 어
쨌든 주인공 배우는 전선미
는 아니지만 주인공의 애
환이 그대로 얼굴과 옷에
묻어 있다. 아름답고, 지고
고, 바지, 가슴에 보여주는
친밀한 웃음, 과일, 제빵, 낙
물, 물기, 이런 것들이 얼굴
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면에서 사실을 포괄하는
이 영화도 뛰어난 영화다. 그
런데 한 사실?

그렇게 사실감이 중요하더라
면 documentary가 자라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주의라
고 하는 세상은 시도를 높이
산 듯 하다.

그러나 문화의 한계, 영화
내 미미로 보기를 주장하는 나
는 이 영화는 나쁜 영화는 아
니지만 그런 실점적인 영화
에 머문다.***

배우도 연기하 좋았으니 망
정이지 사실감 살린다고 연기
가 서투른 평범한 사람을 기
용했다
면 육관 실점 영화라는 것
이다. 아마 비평가들 Neorealism
이라 하고 하는 세상은 시
도를 높이 산 듯 하다.

그러나 문화의 한계, 영화
내 미미로 보기를 주장하는 나
는 이 영화는 나쁜 영화는 아
니지만 그런 실점적인 영화
에 머문다.***

배우도 연기하 좋았으니 망
정이지 사실감 살린다고 연기
가 서투른 평범한 사람을 기
용했다
면 육관 실점 영화라는 것
이다. 아마 비평가들 Neorealism
이라 하고 하는 세상은 시
도를 높이 산 듯 하다.

그러나 문화의 한계, 영화
내 미미로 보기를 주장하는 나
는 이 영화는 나쁜 영화는 아
니지만 그런 실점적인 영화
에 머문다.***

배우도 연기하 좋았으니 망
정이지 사실감 살린다고 연기
가 서투른 평범한 사람을 기
용했다
면 육관 실점 영화라는 것
이다. 아마 비평가들 Neorealism
이라 하고 하는 세상은 시
도를 높이 산 듯 하다.

그러나 문화의 한계, 영화
내 미미로 보기를 주장하는 나
는 이 영화는 나쁜 영화는 아
니지만 그런 실점적인 영화
에 머문다.***

배우도 연기하 좋았으니 망
정이지 사실감 살린다고 연기
가 서투른 평범한 사람을 기
용했다
면 육관 실점 영화라는 것
이다. 아마 비평가들 Neorealism
이라 하고 하는 세상은 시
도를 높이 산 듯 하다.

그러나 문화의 한계, 영화
내 미미로 보기를 주장하는 나
는 이 영화는 나쁜 영화는 아
니지만 그런 실점적인 영화
에 머문다.***

배우도 연기하 좋았으니 망
정이지 사실감 살린다고 연기
가 서투른 평범한 사람을 기
용했다
면 육관 실점 영화라는 것
이다. 아마 비평가들 Neorealism
이라 하고 하는 세상은 시
도를 높이 산 듯 하다.

동창회비·관학후원금·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 동문 (2013.7.1 ~ 10.7)

2013.7-2014.6

동창회비

▶Alaska

윤재준(공대 55)

▶Arizona

김정현(공대 55)

유기철(대교 60)

김민희(사대 56)

지영록(의대 59)

전명규(공대 70)

▶California

강종현(법대 59)

강종현(의대 75)

김영희(의대 61)

강영호(의대 63)

김정현(의대 72)

강정수(문리 61)

강정훈(미대 56)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강정호(공대 48)

*동창회비를 비롯한 관학 후원금 등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세요.
snuausa12@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3년 7월 ~ 2014년 6월)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학 대표회원		입학연도:	
주소:		주소		전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관학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학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연 \$200 ☐		2013.7-2014.6 \$75 ☐		2013.7-2013.12 \$120 ☐		1/6인 (5" x 4.5") \$300 ☐	
연 \$500 ☐		2014.7-2015.6 \$75 ☐		2014.1-2014.6 \$120 ☐		1/3인 (10" x 4.5") \$400 ☐	
연 \$1,000 ☐						1/2인 (10" x 6.7") \$800 ☐	
기타 \$						전면 (10" x 13.5") \$1000 ☐	
						전면(Back 10" x 13.5") \$1500 ☐	
보낼 곳: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 703-462-9083 e-Mail: snu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2014.7-2015.6 동창회비 선납

▶California

김정현(의대 59)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김정현(의대 72)

▶Heartland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김정현(의대 70)

▶Chicago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67)

김정현(의대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Mackone Development Inc.
왕대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공인학개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s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현 공인회계사
이강현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인(공대 86)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5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930 Crenshaw Blvd. #R.
Torrance, CA 90505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 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약학/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8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C&C
C&C Chemicals, Inc.
10000 Clay Road, Suite 300
Houston, Texas 77057
www.candcchemical.com

Phone: 713-255-1544
Fax: 713-485-1715
Toll Free: 877-688-8811
800-241-1446 (toll free)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변리법인 해방 극지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 (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300 Mt. View CA 94043

교회

라 카나다 한인교회
최고 원(공대 85)
(718) 995-706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서비스/재동계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Spacecraft - Aircraft & Marine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대 64)
2001 W. Chapman Ave. #200
Orange, California 92667
Telephone: 714.962-2290 Fax: 714.962-2292
e-mail: info@taycoeng.com
http://www.taycoeng.com

수의사/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56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훈(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북가주

엔지니어링 / 법인 / 부동산 / 교회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NJ-NY 뉴욕/뉴저지

공인학개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상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리타일링 / 유통 / 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New York Golf Center
이건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OR 오레곤

Fionon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 7416 Beaver ton OR 97007

PA 필라델피아

건축 설계

Timothy Hay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9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200 Blue Bell PA 190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MD,VA 워싱턴DC

부동산 / 장례업

BPS Appraisal Company
박병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여행기·특독주
기타 = 동창회보는 모든 동문
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으니 연
재는 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반 지나치게 정치사회적, 이념
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적으로 너무 지루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은
꼭지 아닌 경우 A4(Letter)용
지 3-4매 이내로 원고사진과 연
락처를 첨부해주시요.
▶My Journey to America = 동
문들의 지난 온 과거를 그리는
연재 'My Journey to America'
57) 동문들의 글을 연재하고 있
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
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주간>

‘편집후기’

○>고별은 박사님께 감사함 = 필
라델피아 동창회의 고별은(문리대
55) 박사님께서 동창회보를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
국인일 신문 스크랩 자료를 등록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지난 9월
7일 있었던 필라델피아 동창회 신
구 회장 이하임아부라 선임 판공회
(문대 80) 회장과 인터뷰 기사, 평
범 동문들의 행사와 동정 등에 관
한 것이었습니다. 10월호 마감을

불과 나흘 앞둔 상태에서 자료를 받
았기에 부랴 부랴 페이지를 바리
편집을 하느라고 상당시간을 소모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
신스럽게 자료를 스캔해주시고 내
은 고별은 박사님에게는 무한한 고
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발판과 편집주간은 필라델피아
동창회에서 있었던 이것은 소식을
을 자랑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지역 동창회장 이하임아부와 같
은 중요한 행사를 미주 동창회가
가장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편집
주간, 큰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6개 지역이나 되는 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을 동창회 사
무처에 있어서 모두 파악하기란
그런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동창회장 이같은 소식을 보내
주기를 수시로 간파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는 지역 동창회가 6-7곳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각 지역 동
창회에서는 회장단 뿐 아니라 문
개인이라도 미주 동창회와 동창회
보를 위해 이처럼 보다 깊은 관심
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 <편집주간>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승수(문) · 강수석(의) · 이병준(상) · 오인식(법) · 이흥락
(과) · 오홍준(지) · 이영택(공) · 이진규(농) · 송순열(문)

명예회장: 김문중(상)

제12대 회장: 오인환(문)

치기 회장: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이재진(문)
미 주류시회 담당 부회장: 공준석(2)
관악시대 담당 부회장: 이현영(사회)
사회배우 담당 부회장: 미정

상임고문: 박승수(문) · 이영택(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정경희(공)
총무국장: 황윤진(농)
재무국장: 김민준(의)
재무국장: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황윤선(문)
사업국장: 김경식(농)
선임국장: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권활수(의)
IT개발위원장: 손재욱(가정)

회보 임원

발 행: 오인환(문)
주 필: 박 순(법)
편집위원장: 장경태(사)
편집주간: 이기찬
편집위원: 윤경희(공) · 서재석(의) · 이윤주(상) · 이혜택(상)
정명희(공) · 김경식(농) · 정성택(의) · 황윤선(문)
이내래(공) · 각 지역 동창회 편집자

논설위원장: 이창열(법)

논설위원: 김일환(의) · 고병환(법) · 조동훈(의) · 이재진(문)
최명준(공) · 정명희(상) · 윤상래(수) · 김창수(의)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윤환(공) · 유재홍(문)
장석정(법) · 허승(사) · 이영택(법) · 이현영(문)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원 = 서경민(의) · 이만인(법) · 윤상래(수) ·
지명(사) · 신승남(의) · 황윤선(문)

감 사: 박명일(농) · 주기숙(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 이기찬 편집주간
snsusausk@gmail.com snsusausk2@gmail.com
*인쇄 =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자기회장	김상찬(문리 65) 714-503-1172 sckim1@yahoo.com
북가주	회장 자기회장	이창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s-nc.org 박상현(간호 73) 831-818-2959 acucheer@hotmail.com
뉴욕	회장 자기회장	박상현(문대 69) 917-327-2989 sangparkny@gmail.com
뉴저지	회장 자기회장	장승언(문대 76) 978-621-9434 sooinhee@comcast.net 이경애(인문 73)
달라스	회장 자기회장	최 인(문대 70) 817-919-3057 youchoung@sbcglobal.net 오기영(문대 73)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자기회장	표한상(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미네소타	회장 자기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샌디에고	회장 자기회장	심상철(문대 81) 858-436-5498 sdinson@gmail.com 최홍수(자연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시카고	회장 자기회장	한희영(문대 62) 312-213-8557 aeyul1981@gmail.com 김희영(문대 60) 847-657-8919 hkim@mcgong.com
애틀랜타	회장 자기회장	오문환(문리대) ynhoh@raethon.com
앨라배마	회장 자기회장	유재홍(문대 55) 907-223-0887 aejyoon@hotmail.com 박석민(문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자기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lee@gmail.com
오하이오	회장 자기회장	송원길(외대 58) 614-378-2918 wonsong314@aol.com
워싱턴 DC	회장 자기회장	함은선(문대 77) 703-969-3006 samila12010@gmail.com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tt@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자기회장	김무용(문대 64) 253-228-4396 ctzn20@gmail.com 수석총무 원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부회장	배유환(공대 73) 801-474-1945 you_bae@yahoo.com
조지아	회장 자기회장	박 민(문대 80) 770-449-0000 minpark@yahoo.com 김정호(공대 74) 770-814-0618 hkim@m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자기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s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부회장	한홍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jnj.com 유기봉(문리 64)
플로리다	회장 자기회장	박창환(문대 64)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캐롤라이나	회장 자기회장	최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_jung@duke.edu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lee109@nc.rr.com
데네시	회장 자기회장	김경애(공대 75) 865-974-5292 kkim@att.net
하와이	회장 자기회장	김용수(수학 75) 808-394-2369 ykim@wanjawaii.edu
하를랜드	회장 자기회장	이상간(문대 70) 918-687-1115 918-360-9178 wonjunhoo@gmail.com 박혜송(문대 68) 913-481-1946 hyesonglee@yahoo.com
휴스턴	회장 자기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부회장	김홍자(문대 62) 778-365-6659 hongjakim@shaw.ca 조석기(사대 71) 604-688-4039 seokgi@mid71.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부회장	조종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a@hotmail.com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one.com

888-633-7400
888-633-7404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jayonefoods

Paul Chung, P.E.
President

정명희(공대 71)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GEOTECH ENGINEERS, INC.
11890-U Old Baltimore Pike, Beltsville, MD 20705
Tel.301.937.9227 / Fax.301.937.9189
Website: www.geotechengineersinc.com
E-mail: paulchung@geotechengineersinc.com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태정 82인, 문리대 |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라이빗 브랜드: 규모와 인명, 서비스까지 고객에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비례형 커리어-내: 전문직이고 인명 수 있는 커리어-내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한국 회원에게: 한국 회원과의 만남을 위한 공구, 2인 6인방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KEI USA INC
Kingdom Enterprise Inc. USA
Manufacturer's Representative for Korean Automotive Parts

www.keiusa.com keiusa@keiusa.com
140 RT 17 N#325, Paramus, NJ 07652, USA
Tel: (201)576-9229 Fax: (201)576-9533
President: Jay P. Kim (김정필) (공대 71인)

Major customers: Caterpillars / John Deere / General Motors / Ford Motors / Chryslers / Federal Mogul / General Electric

KEI USA is a proven industry leader in bringing value adding services to the Automotive and Truck industry. With a decade of experience and over 200 million parts shipped, we have been working closely with our suppliers to support quality subcontract manufacturing requirements for our customers

We are dedicated in helping you overcome various obstacles like language, culture, distance, and engineering standards to supply a superior product to you and your customers.

Valve Lifters	R/C Shafts	R/C Stands	Hot Forging Products	Ball Joint Housing	Rockers Arms
					



**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System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 Water Treatment / Storage / and Distribution
- Wastewater Collection / Treatment / Recycling
- Facility Design (Civil, Structural, Mechanical, Electrical, and Instrumentation)
- Regulatory Consulting / Permitting



Four California Offices:

City of Industry, Sacramento,
San Diego, and Walnut Creek

WWW.LEE-RO.COM

노명호(공대 61)

**M. Steve Ro, P.E.
President/CEO**